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 중심인물: 주인공의 구체적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익명으로 설정 →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함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창고 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비현실적(비일상적)상황이 설정됨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단지 의문형 문장 →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드러냄, 독자 또한 ‘그’와 함께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함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육신의 매듭마다 뼈 =>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

격이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는 개이지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쳐 보았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 감각적인 표현 → 그의 힘든 몸 상태를 나타냄 벽이 환상인지 확인해 본 것임 벽은 실제함 → 벽을 주제로 서술하여 벽의 단호한 힘 부각

를 밀어냈다.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해진 의식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애기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를 드러냄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였다. 그 고통 때문에 유폐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은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기억의 불확실성,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자아가 희미해지는 현대인의 모습 암시

그 기억이.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냈다.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

[A] 파른 승강,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

직유 - 갱 속의 어둡고 좁은 환경을 생생하게 표현, 창고의 유폐감과 유사한 느낌을 줌

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깨냈던 것이다. => ‘그’가 외부와 단절된 채 노동에 갇혀 살았음을 암시

석탄-전당포 창고 안의 먼지에 대응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

갱 속 = 전당포 창고 안=시간이 정지된 곳 시간의 흐름을 노동의 양으로만 인식 → 노동에 매몰되니 삶을 단적으로 보여 줌

다. 문득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그렇게

원관념: 하늘

음산했다. <그것이 새벽 어스름인지 저녁 땅거민지를 굳이 헤아릴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미를

=> 그의 삶이 철저히 노동에 종속되어 시간 구분이 무의미해졌음을 의미 → 개인의 주체적인 시간과 삶 상실

찾을 필요도 없었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

힌 대가로.

제목과 연관된 표현 → 평생 노동에 종속된 삶을 살아옴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어 가는 자기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 내고 있었다.

(중략)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허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내면 생각을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로 나타냄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손을 털며 ④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한쪽 구석으로 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해 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졌지만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사물들 사이에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즐겁게 했다.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적어도 동사를 면할 수는 있는 조건이었다.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접어 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 => 시간의 흐름에 대한 무감각 -> 그의 삶이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노동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나타냄
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러울 게 못 되었다. ⑤자신은 언제나 외로움에 저당잡힌 그의 삶
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서의 그다지 타기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어쩌면 가장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싸늘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중얼댔다.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냄
“자, 이제부터 또 무얼 한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만 소름이 오싹 끼침을 의식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곳을 쳐다보았다.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희고 견고한 벽의 한 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건잡을 수 없이 떨렸다. ⑥뻗뻗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그는 미라처럼 어기적거리며 그 문으로 다가갔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든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해 왔다.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밀고 조심스레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다.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

1.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외부에서 다시 전당포로 들어오는 입구 그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
2.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가 드러남
3. 순화적 서사구조를 이루는 매개물

그는 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의 얼굴을…….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낯익은 공간의 어딘가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졌다.

<“어떻게 오시었소?”
=>마치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줌

대머리 사내가 권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전당 잡힐 거라도?”>

- 주제 : 반복된 노동에 종속된 현대인의 정체성 상실
- 특징 :
 1. 순환적 서사구조->문을 매개로 시작과 끝이 반복됨
 2. 비현실적 설정 ->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대화
 3. 익명의 인물 -> 현대 사회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 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문이 하나 거기 달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었다.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은 짙은 혐오감만을 남겨 놓았다.

-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현대 소설)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이 작품은 출입문을 매개로 서사 구조가 순환되는 비현실성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노동에 저당 잡힌 채 끝없는 노동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전당포에 취직한 ‘그’는 창고 정리 일을 하던 중, 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반복된 노동으로 자신의 생애를 유지했던 지난 날을 환기하며, 점차 자신의 상황에 적응한다. 갑자기 다시 문이 나타나 ‘그’는 창고 밖으로 나가지만, 문을 통과하는 순간 처음 ‘그’가 전당포로 들어왔던 상황이 재연된다. ‘그’는 전당포 취직부터 문이 사라져 창고 안에 갇히는 과정을 또 경험하고, 창고 안에 다시 갇혔을 때 자신의 생애 중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다.